

# 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[seogil.chang@kotra.or.kr](mailto:seogil.chang@kotra.or.kr))

2023.04.11.(화) 제23-043호

◆ [Focus] USTR 발간 2023 무역장벽보고서(NTE) 주요 내용 요약

◆ [What's News]

- (부채) IMF-세계은행 총회, 개도국 부채 구조조정을 두고 설전
- (광물협정) 인도네시아, 미국에 IRA 혜택 위한 광물 협정 제안 움직임
- (물류) 미 서부 항만 노사 협상 지체 속 공급망 리스크 고조
- (전기차) 美 EPA, 2032년까지 신차 비중 67% 전기차로 목표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## FOCUS

### [무역규제] USTR 발간 2023 무역장벽보고서(NTE) 주요 내용

#### 1. 개요

- 미국 무역대표부(USTR), 2023년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공개(3.31)
  - 동 연례보고서\*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의 수출, 해외직접투자, 전자상거래 관련 '장벽'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·평가를 담고 있음
  - \* 1974년 통상법(181조)에 의해 매년 3월 31일까지 발간
  - 발간을 위한 업계 관계자 의견수렴 동안 총 93건의 의견을 접수, 이 중 58건이 공개 게재됨('22.9.15~10.28)
  - \* 전년도 대비 접수(149건, ▲38%) 및 공개 게재건수(70건, ▲17%) 감소
- 동 보고서는 미 수출의 대부분(상품 수출 99%, 서비스 수출 66%)을 차지하는 64개 국가의 무역장벽을 13가지 분야로 나눠 분석

< 2023 무역장벽 보고서 주요 분석 분야 >

연번	분야명	연번	분야명	연번	분야명
1	수입 정책	6	서비스 규제	10	경쟁
2	기술 장벽	7	디지털 교역 및 전자상거래	11	국영기업
3	위생검역			12	노동
4	정부조달	8	투자 규제	13	환경
5	지재권 보호	9	수출 보조금		

○ USTR은 다섯 가지 분야에서의 무역장벽을 주요 사례로 언급

(1) 농업 분야(Agricultural Trade Barriers)

- 중국의 불명확하고 까다로운 생산시설 등록(해관총서 248호령·249호령) 및 인도네시아의 유제품·육류 제품 등에 대한 생산시설 등록 요구
- 인도, 튀르키예, 멕시코, EU 등의 GMO 관련 정책
- 에콰도르, 이집트, 인도네시아 등의 수입 라이선스 요구 및 불투명한 수입 라이선스 발급 절차
- 중국 등 조류독감 영향 지역의 가금류 교역 관련 국제 표준 준수 미흡

(2) 디지털 교역(Digital Trade Barriers)

- 중국, EU, 인도, 인도네시아, 러시아, 튀르키예, 베트남의 데이터 정책이 미국의 디지털 교역을 저해

(3) 산업 정책(Industrial Policies)

- 중국의 비시장적 국가주도 경제정책이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우위를 부여하고, 시장왜곡과 글로벌 과잉 생산 등을 야기
  - \* 중국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, 규제 등에서의 혜택 등
- 첨단 및 중요 산업 분야 주도권 획득을 위해 비시장적 정책 사용 중으로, 미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무역 수단을 통해 미국의 경쟁력을 보호하려고 할 것

(4) 노동 정책(Labor)

-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등에서의 강제노동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
- 그 외 방글라데시와 도미니카 공화국의 노동 권익 이슈를 언급

(5) 기술 장벽(Technological Barriers to Trade)

- (자동차) 콜롬비아, 이집트, 모로코, 필리핀, 대만 등의 자동차 안전 규정 문제와 일본의 독자적인 자동차 통신 주파수 문제
- 인도의 통신장비 관련 자체 시험 및 인증 요구

## 2. 주요 국가별 요약

○ USTR은 국별 보고서에서 중국에 가장 많은 41페이지를 할애하였으며, EU(32p), 인도네시아(17p), 인도(14p), 러시아·일본(13p) 순

### (1) 중국

- USTR은 중국이 미중경제무역협정을 온전히 준수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해당 협정이 중국의 비시장적 국가주도 무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고 평가
- 중국은 외국 기업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면서 “Made in China 2025” 같은 산업정책을 통해 국영기업 외 중국기업에 불공정 경쟁 우위 부여
- 지적권 보호 관련, 무역협정 후 WTO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법·규제 개정을 하였으나 아직 미흡하여 작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최우선 감시 국가에 등재되었음
- 사이버보안법은 “핵심 정보 인프라” 운영업체가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않은 제품·서비스 사용 시 벌금을 부과하여 중국 ICT 제품 사용을 유도
- 신장 위구르 지역 등의 강제 노동 외에 자유로운 조합 설립권과 파업 권리가 없는 것을 국제 노동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로 지적

### (2) EU

- EU 관련해서는 디지털 서비스법(DSA), 디지털 시장법(DMA) 등 디지털 관련 규제를 주된 규제로 언급
- 디지털 서비스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\*에 허위정보, 혐오발언, 불법 콘텐츠 확산 등 구조적 위험에 대한 정기적 평가 의무 등 부과
- \* 월 평균 EU 내 서비스 사용자수가 4,500만명 이상인 플랫폼
- 디지털 시장법은 EU 위원회에 ‘게이트키퍼’로 지정된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연 매출의 10%를 초과하지 않는 선의 벌금 부과 등을 가능케 함

### (3) 일본

- 자율 주행 관련 주파수 할당, 독자적인 스마트키 주파수 사용 등 일본 자동차 시장 진입 관련 비관세 장벽 언급
- 쇠고기 및 가공품에 대해서 국제 기준보다 높은 검역 수준 유지
- “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법”에 의거, 아마존, 구글, 애플 등을 특정 디지털 플랫폼 제공업자로 지정한 것에 대한 업계 우려 등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장석일
■ 자료원	USITC 보도자료(3.31), JETRO(4.10), 워싱턴무역관 보유자료 등

□ (부채) IMF-세계은행 총회, 개도국 부채 구조조정을 두고 설전

- (개요) IMF-세계은행 총회에서 개도국 부채 문제를 두고 대중 압박 예상
  - IMF-세계은행 춘계 총회가 4.10~16 동안 워싱턴 DC에서 개최 중
  - IMF · 세계은행 · 인도(G20 의장국)가 공동 주관하는 Global Sovereign Debt Roundtable(4.12)에서 아프리카 국가 등 부채 구조조정 해법 논의
- (상세) 개도국 부채 해결을 두고 서방 채권국과 중국 간 의견 대립 심화
  - 미국 등 서방 세계는 개도국 개발 금융에서 최대 채권자가 된 중국의 대출 관행에 문제 제기, 빈곤국 부채 조정 노력에 중국의 참여 촉구
  - 2017년 이래 중국은 세계은행, IMF, 파리 클럽(22개 회원국) 등을 제치고 세계 최대 공식 채권국으로 자리매김
    - \* 중국의 대외 개발 용자는 총 8,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(2000~2017년)
  -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에 따라 잠비아, 스리랑카, 가나, 에디오피아, 파키스탄 등 중국 차관에 의존했던 국가들은 채무 상황에 애로
- (전망) 중국이 서방의 부채 구조조정 협력에 참여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
  - 미국 등 서방 중심의 IMF · 세계은행은 중국 개발 금융의 투명성 재고와 약탈적 대출 관행의 시정을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주장
  - 한편, 중국의 대외 개발 차관은 다수의 민간 은행으로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바, 중앙 집권적으로 구조조정을 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정민
■ 자료원	플리티코프로(4.10), IMF <a href="#">홈페이지</a> , AIDDATA(3월)

□ **[광물협정] 인도네시아, 미국에 IRA 혜택 위한 광물 협정 제안 움직임**

- (개요) 인니, 美 정부에 주요 광물에 제한적 무역협정 제안 전망
  -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미국과 니켈이나 알루미늄 등 배터리용 주요 광물 제품에 대해 제한적 무역협정(limited free trade) 추진 계획 보도
    - \* 로이터, 루훗 판자이탄(Luhut Pandjaitan) 해양투자조정 장관 인용 보도
  - 미국이 최근 일본과 체결한 무역협정과 유사한 형태로 인도네시아 EV 핵심 광물이 미국 IRA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
- (상세)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이지만 미국과는 FTA 미체결
  - 인도네시아는 세계 1위 니켈 생산국으로 2022년 기준 전 세계 생산량 가운데 37%를 차지하고 있지만 미국과는 FTA 미체결국
  -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아르자드 라스지드(Arsjad Rasjid) 의장은 성명에서 미국의 친환경 보조금 제공이 공정하지 않다며 인도-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회원국을 FTA 체결국으로 대우해달라고 제안
    - \* 미국 또는 FTA 체결국의 채굴·가공한 핵심 광물 비율(2023년 40%→2029년 100%)을 충족하는 배터리 장착 시 3750달러 세액 공제 혜택 제공
  -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(PIIE)는 “미국의 프렌드쇼어링 정책에서 인도네시아와 같은 주요 니켈 생산국과 추가 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IRA의 세금 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니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”고 지적

〈주요 국가 니켈 생산량 및 매장량〉

	Mine production		Reserves <sup>5</sup>
	2021	2022 <sup>6</sup>	
United States	18,400	18,000	7370,000
Australia	151,000	160,000	21,000,000
Brazil	76,000	83,000	16,000,000
Canada	134,000	130,000	2,200,000
China	109,000	110,000	2,100,000
Indonesia	1,040,000	1,600,000	21,000,000
New Caledonia <sup>9</sup>	186,000	190,000	7,100,000
Philippines	387,000	330,000	4,800,000
Russia	205,000	220,000	7,500,000
Other countries	429,000	440,000	20,000,000
World total (rounded)	2,730,000	3,300,000	>100,000,000

[자료: USGS (2022)]

-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- 자료원 | 로이터(4.10), 인사이드트레이드(4.10), USGS(2022)

## □ (물류) 미 서부 항만 노사 협상 지체 속 공급망 리스크 고조

- (개요) 지난 금요일 美 서부 LA·롱비치항 물류 시설 운영 일시 중단
  - 미국 수입 물동량의 약 40%를 처리하는 LA·롱비치 항구는 지난 7일 금요일 물류 노동자 부족을 이유로 24시간 동안 폐쇄
  - 사측인 Pacific Maritime Association(PMA)은 이번 운영 중단 사태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영업 방해의 결과라며 비판 성명 발표
- (배경) 서부 항만 노사 협상 정체로 미국 내 물류 대란 재발 우려 고조
  - 작년 6월 서부해안항만노조(ILWU)와 PMA는 근로계약 연장 협상에 돌입. 남부 캘리포니아 항만 시설 포함 29개 항구에 근무하는 2만여 명에 달하는 항만 물류 노동자의 근로조건 협의 진행
  - 협상이 장기화함에 따라서, 현재 근로계약 갱신 없이 근무 중인 항만 노동자들이 실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(반응) 일부 산업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직접 개입을 통한 해법 촉구
  - 전미소매연방(National Retail Federation)은 서부 항만 노사 분쟁의 위험성을 경고하고, 백악관의 즉시 개입으로 물류난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
    - \* 대통령은 파업 발생 시 법원 명령을 통해 노동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 보유
  - 전미제조업협회(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) 보고서에 따르면, 서부 항만 파업이 발발하면, 하루 5억 달러의 금전적 피해 발생

▪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이정민

▪ 자료원 | 블룸버그통신([4.10](#)), 폴리τικο프로([4.7](#)), 월스트리트저널([3.20](#))

## □ [전기차] 美 EPA, 2032년까지 신차 비중 67% 전기차로 목표

- (개요) 환경보호청(EPA), 2032년까지 전체 신차 판매의 67%를 전기차로 대체
  -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EPA가 2032년까지 전체 차량의 2/3를 전기차로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 배출 규제안이 4월 12일(수) 발표될 예정
  - 보도에 따르면 전기차의 판매 규모나 비중을 명시하는 대신 총판매 차량의 배출 가스 한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할 전망
- (상세) 현재까지 가장 급진적인 기후 규제 목표 설정, 여러 문제 야기 전망도
  - 2022년 기준 미국에서 판매된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5.8%에 불과, 2021년은 3.2%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
  - 기존 바이든 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 자동차 판매의 절반을 하이브리드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로 판매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으나, 2030년 까지 54~60%, 2032년 까지 67%로 완전 전기차 대체 목표 신규 설정
  - \* 유럽 연합은 2035년까지 신규 휘발유 차량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차량 배출 기준을 제정
  - 현지 언론은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미 전기 자동차에 상당한 투자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공세적인 채택을 강제하는 것은 광범위한 충전 인프라 마련, 합리적인 차량 가격 책정 어려움 등 여러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 보도
  - 아울러, 팬데믹 이후 공급망 사태 이후 반도체·배터리 등 핵심 부품의 충분한 원자재 확보 문제도 제조업계의 입장에서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■ 자료원	뉴욕타임스(4.8), CNBC(4.8)

## 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Wall Street Journal	<a href="#">Bank Volatility to Slow U.S. Economic Growth, IMF Says</a> (IMF “금융 분야 불안정성로 미국 경제 둔화”)
	최근 금융계 사건들로 인해 강력해진 대출 규제가 2023년 미국 경제 성장률을 약 0.44%p 감소 시킬 것이라고 IMF 관계자 의견
The Washington Post	<a href="#">U.S. has doubts about Ukraine counteroffensive, leaked document says</a> (누출 문서 “미국, 우크라이나 반격에 대해 회의적”)
	최근 누출된 비밀 문건에 따르면 2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은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나
New York Times	<a href="#">The California Economy Is on Edge After Tech Layoffs and Studio Cutbacks</a> (빅테크와 영화산업 감원 등으로 위기에 처한 캘리포니아 경제)
	침체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는 가운데, 기술 및 영화 등 주요산업의 부진으로 주 경제가 적자로 전환. 기후로 인한 농업 부진도 영향

\* 미국 동부시간 4월 11일 17시 기준

## Notice

### □ 주요 경제 · 통상 일정

4.11(화)	3월 NFIB 중소기업낙관지수(NFIB optimism index)
4.12(수)	3월 소비자물가지수(Consumer price index (CPI))
4.13(목)	3월 생산자물가지수(Producer price index)
4.13(목)	4월 1주 실업수당청구건수(Initial jobless claims)
4.14(금)	3월 미국소매 판매실적(U.S. retail sales)



□ **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**

◆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, **경제통상리포트** (과거 리포트 : [☞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3-11	<a href="#">바이든 행정부의 제조업 탈탄소화 지원정책 현황</a>	2023.03월
US23-10	<a href="#">2024년 美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현지 반응</a>	2023.03월
US23-09	<a href="#">美 의회의 대중경쟁 관련 주요 법안 내용</a>	2023.03월
US23-08	<a href="#">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US23-07	<a href="#">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</a>	2023.03월
US23-06	<a href="#">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</a>	2023.03월
US23-05	<a href="#">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</a>	2023.02월
US23-04	<a href="#">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</a>	2023.02월

◆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, **기획조사** (과거 보고서 : [☞해드림 심층보고서☞](#))

발간번호	제목 (※클릭하면 이동합니다)	발간시기
US22-기 획7	<a href="#">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</a>	2023.01월
US22-기 획6	<a href="#">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5	<a href="#">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</a>	2022.12월
US22-기 획4	<a href="#">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</a>	2022.11월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☞유튜브 KOTRA TV☞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0 (2023.4월 중)		업로드 예정
코인시-9 (2023.3.15)		